

자본력 갖춘 제4인행 나올까… 금융위, 신규인가 재추진 검토

금융위, 소소 등 4개 컨소시엄
제4인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
신협중앙회, 'CU뱅' 설립 의지
소호은행, 소상공인 금융 추진

금융위원회가 케이·카카오·토스뱅크의 뒤를 이을 제4인터넷은행의 신규인가 재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에 맞춘 제4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정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인터넷은행 필요성과 관련해 “필요성과 여건의 성숙 여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 소소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에 대해 모두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4개 컨소시엄은 모두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취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대주주 불투명 문제가 제기됐고, 포도뱅크와 AMZ 뱅크도 대주주

불투명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정책동력이 약해진 영향도 컸다. 제4인행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전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와 탄핵, 정권교체 변수가 겹치면서 제4인행 과제는 뒤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생산적금융, 포용금융의 취지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 절차가 또 다시 재가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현재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신협 공동 출자 방식의 인터넷은행 ‘가칭 CU뱅’ 설립을 공약했다. 비대면 금융상품과 AI(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구상이다.

소소뱅크도 결제 자산 인프라기업 NHN KCP를 주요 주주로 품으며 또 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인터넷은행 설립을 목표로 전국 소상공인연합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이다. 앞선 심사에서 약점으로 지적된 대주

주 안정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소호은행도 인터넷은행에 재도전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해 설립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이다.

당시 김동호 KCD대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새 정부 임기 내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긴다면 한국소호은행일 것”이라고 밝혔다. KCD는 스몰 라이선스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포용금융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제4인터넷은행 논의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과거 심사에서 드러난 자본력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난 3일 철도운영사 통합을 위한 고속열차 교차 시운전이 실시됐다. /뉴시스

수서역·서울역에서 KTX·SRT 교차운행

국토부, 25일부터 시범사업

앞으로 수서역에서도 KTX를, 서울역에서도 SRT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은 오는 25일 고속열차 통합운행을 위한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KTX(955석)와 SRT(410석)가 각각 하루 1회씩 왕복 운행하며 KTX는 부산역~수서역행이, SRT는 부산역~서울역행이 마련된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1일 개시한다. 코레일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역사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은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 수서발 KTX는 평균 10% 저렴(SRT 운임과 동일)하게,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 다만 시범 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 등은 적립되지 않는다. 향후 이용객의 견수령을 거쳐 통합 운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신한은행 서울 25개 전자치구와 공공배달앱 협약 완료

신한은행은 10일 노원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울시 25개 전자치구와 공공배달앱 협약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2022년 1월 광진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와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공공배달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맹거요는 공공배달앱 협약을 바탕으로 자치구별로 맹거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서울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발행하고 있다. 전용 상품권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맹거요는 전용 상품권과 연계해 고객 혜택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전용 상품권으로 2만5000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서울시는 전용 상품권과 자치구 사랑상품권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주문금액의 5%를 맹거요 전용 상품권으로 페이백해 이용 편의와 혜택을 함께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및 전 자치구와 협업을 바탕으로 공공배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관점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행사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 여섯번째)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여섯번째),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 및 그룹 임직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 임직원 ‘설맞이 상생 캠페인’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그룹 임직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은 그룹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 봉사활동이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과 임직원들은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한파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 등을 위한 설 물품을 구매하고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민생 현

장의 목소리를 직접 살폈다.

임직원들은 1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한 방한용품, 생필품, 식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키트를 제작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2000여 명에게 전달하며 신한금융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설 명절은 한 해의 시작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신한금융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중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는 상생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인천 가좌동점에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KB국민은행, 안마의자 등 갖춰

KB국민은행은 인천 서구 가좌동점에 라운지 형태의 특화 점포인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는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니어 고객 맞춤형 공간이다.

라운지에선 전담 직원이 빠른 창구를 통해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안마의자, 혈압 측정기, 커피 머신 등을 갖춘 공간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나 홀로 웃은 현대카드 카드업계 ‘톱3’ 꿰찼다

지난해 주요 카드사 실적 부진 속
순익 3505억 전년비 10.7% 증가
삼성·신한 이어 기존 4위→3위로

현대카드가 나 홀로 두 자릿수 순익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카드업계 순위에서 각각 변동을 일으켰다. 업계 4위에서 3위로 올라서며 ‘톱3’ 안착에 성공한 것이다. 반면, 업계 전반은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감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신한·현대·KB·우리·하나 등 주요 카드사가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현대카드 순익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성장세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3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164억원) 대비 약 340억원(10.7%)량 늘어난 수치다. 영업수익은 4조78억원으로 1.1% 증가했으며, 영업비용은 3조5685억원으로 0.3% 소폭 올랐다.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4394억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순이익뿐만 아니라 외형 지표 성장세도 안정적이다. 지난 2022년 1104만 명이었던 회원 수는 2023년 1173만 명, 2024년 1225만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267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신용판매(신판) 취급액은 177조 원으로 전년 대비 6.2% 늘었으며, 금융자산은 8조원으로 같은 기간 3.7% 확대됐다.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현대카드는 순이익 기준 업계 3위에 처음으로 올라섰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 기준 업계 순익 순위는 삼성카드(6459억원), 신한카드(4767억원), 현대카드(3503억원) 순이다. 기존 4위였던 현대카드가 3위권에 진입하면서 상위



현대카드 사옥 전경. /현대카드

권 순위에서 변화가 생겼다.

이 같은 성장에는 상품 라인업 강화가 주효했다. 현대카드는 앞서 라이프스타일 카드 ‘현대카드 알파벳카드’를 11년 만에 재출시하는가 하면, 일상 소비 영역을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한 ‘현대카드Z 에브리데이(everyday)’ 카드를 선보인 바 있다.

두 카드 모두 마트, 백화점, 음식점 등 일상생활 혜택에 집중한 실속형 상품으로, 1만~2만 원대의 합리적인 연회비를 책정해 고객의 이용 문턱을 낮췄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상품 라인업 강화를 통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비롯해 국내 및 해외 신용판매, 회원 수, 평균 이용금액 등 전 영역에 걸쳐 고른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업계 전반은 순이익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계 선두권 카드사들도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 6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신한카드 역시 당기순이익 4767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16.7% 줄었다.

중위권 카드사들의 경우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가 순이익 3302억원, 2177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보다 18%, 1.8%씩 감소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